

멋진, 그러나 섬뜩한 '신세계'

《맞춤인간이 오고 있다》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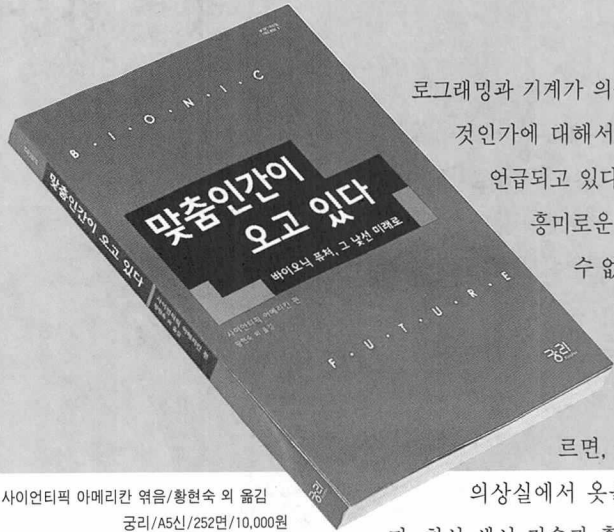
남기수 | 한국해양연구소 장목복소장

“인간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 끼어 있다. '맞춤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를 추처럼 진동하며 향상을 갈구하는 인간의 결과물이다. '맞춤인간'은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과 완전하지 못한 탓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인간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맞춤인간이 오고 있다》(황현숙 외, 궁리)는 현대과학의 최첨단에 선 미세전자공학·컴퓨터공학·유전자 생물공학의 연구결과로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편집한 《Your Bionic Future》를 번역한 것이다. 지식의 첨단분야에 속하는 내용들이 만큼 책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 17명의 원저자에 대한 연구경력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4명의 번역진에 대해서도 학력과 경력을 소개해 독자에게 믿음을 준다. 본문에 배치한 천연색 삽화들은 실험실의 현장감과 인간지능행위의 느낌이 물씬 배어 있는 색채와 기술적 내용들로 '맞춤인간'이라는 용어와 조화를 이룬다.

미래사회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아무래도 '책머리에—유토피아/인간/디스토피아'부터 읽기 시작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인간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 끼어 있다. '맞춤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를 추처럼 진동하며 향상을 갈구하는 인간의 결과물이다. '맞춤인간'은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과 완전하지 못한 탓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인간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서문이 대개 그렇듯이 이 '책머리에'서도 책의 전반적인 내용 설명이 대중적이지만, 편집자가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관점도 엿보인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엮음/황현숙 외 옮김
궁리/A5신/252면/10,000원

제1부 '새로운 육체'에는 인체의 부실한 장기를 교체할 수 있는 교체용 장기의 생산, 몸의 각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의 발견과 배양, 동시에 두 수술대 위에서 진행되는 뇌사자의 몸과 목 이하 마비상태의 환자 머리를 각기 잘라내 성한 부분끼리 접합하는 머리이식 수술, 늙지 않는 근육배양 등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연구사례의 요점 설명과 통계수치를 근거로 전개된다. 제2부 '새로운 감각'에서는 인공망막, 인공귀, 인공코, 미각을 위한 전자코, 가상세계에서 촉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촉각장치 등의 개발에 관한 실험과 연구 사례를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살핀다.

제3부 '새로운 정신'은 기계 지능과 인간 지능의 경합을 다뤘다. 생물의 진화와 기술의 진화는 동일한 패턴을 따르며, 수억년대의 범칙으로 인해, 지수함수적으로 진보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기반해 백만원 상당 PC가 2019년이면 인간 능력과 비슷해지고, 2029년이면 지능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며 일반 PC 한대는 사람 천명의 지능과 필적하게 되고, 2055년이면 전지구인의 지능과 맞먹게 되리라 전망한다. 컴퓨터의 성능 증가로 인간 두뇌의 스캐닝이 이뤄지고, 인간 게놈이 완성되며, 인간 두뇌의 컴퓨터 관련 상체지도가 완성되고, 이쯤 되면 복제 아이에 대한 주문상세서의 작성도 가능하게 된다. 인간 지능의 프

로그래밍과 기계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섬뜩하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제4부 '새로운 아이'에 따르면, 우리는 가상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 입는다. 최신 센서 기술과 휴대용 컴퓨터

기술을 결합한 안경, 시계, 반지, 벨트, 신발 등은 착용자의 스트레스나 각종 신체 징후를 감지해 정보를 제공한다. 제5부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실현될 '새로운 사회'를 보여준다.

구체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미래 예측

맺음말 '미래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에서 원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이 이미 습득된 지식과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수록된 글들은 미래의 예견이며, 닥칠 수도 있는 위협으로 차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예견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강한 자가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빠른 자가 경주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기는 그들에게 걸라"고 하면서, 평상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맞춤인간이 오고 있다》를 읽으면서, 내 자신이 여러 부분으로 조합돼 있거나 않은지 관점을 달리 해보려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종래의 사고 방식에서 탈출해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의식을 지니기 위해서일까? 확신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 내부의 구조적인 면이 세세히, 스스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일어난 막연한 느낌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맞춤인간이 오고 있다》는 내 눈을, 특히 의식의 눈을 크게 뜨게 해줬다.●